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Using Local Cultural Contents

노 영 희 (Younghee Noh)*, 이 석 형 (Seok Hyoung Lee)**
신 영 지 (Youngji Shin)***, 곽 우 정 (Woo-Jung Kwak)****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이 지역 정보서비스의 거점이자 지역정보서비스 센터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지역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도서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 또는 지역 출신 인물과 관련한 콘텐츠 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거나,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 탐방과 학습, 독서,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광범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자원 저장소와 문화자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s the role and function of university libraries have been expanded to become a base for local information services and local information service centers along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revitalize university library services using local cultural contents. I did. As a result, first, university libraries select core cultural contents representing the region or contents related to people from the region as regional cultural contents, receive inform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region, or directly It must perform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s based on culture and art. Second, when planning programs related to local cultural contents, university libraries should proceed in the form of combining local visits, learning, reading, and experiences. Thir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play a role as a repository of cultural resources and a hub of cultural resources through systematic and stable preservation of cultural resources and widespread service expans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키워드: 지역문화콘텐츠, 대학도서관, 지역문화, 문화적 기능, 대학의 역할 변화,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
Local Cultural Contents, University Library, Local Culture, Cultural Function, Change of Role of University, Change of Role of University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융합서비스센터 책임연구원(skyi@kisti.re.kr)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gee910125@gmail.com)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woojung2243@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8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9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9월 1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3): 169-189,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3.169>

1. 서론

대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초기 순수학문만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에서,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순수 학문 연구에서 탈피하여 연구의 성과가 기술 상업화로 연결되고, 교육도 학문을 위한 후학의 양성과 더불어 산업과 사회에서 활용가능한 실용적 교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패러다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편, 90년대 후반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변혁적 대학(transformative university)'과 '시민 대학(civic university)'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는 대학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공공영역 확장과 평등사회 진흥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적 대학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과의 관계는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전 세계 대학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세계 총장들은 "대학이 실적 위주 연구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교육과 산업부터 이끌어야 세계화에도 발맞출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기존 THE(Times Higher Education)나 QS(Quacquarelli Symonds) 등 전통적인 세계대학평가시스템이 연구실적이나 평판도 같이 연구중심대학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으나, 향후 혁신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대학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원진 2019).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은 현재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 입학자원의 감소, 기초학습능력의 저하,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 간 경쟁체제로 인해 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적에 따라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정명화, 김경란 2013).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도 대학의 지역연계 및 지역사회공헌도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8월에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에서도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해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 그 외에도 대학 평가 및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인 CK와 LINC+ 등의 평가지표에서도 지역사회공헌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추가되고 있으며, 관련한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대학이 학생뿐 아니라 교수·교직원,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확대되면서(송소연 2020), 대학도서관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연구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랫동안 그 이용자로서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구원 등 만을 의식하여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대학의 대중화, 평생교육의 일반화, 정보기술의 발전, 지방자치체로 인한 지역화, 지역정보화 시책 등의 변화로 대학도서관은 이용대상자를 학내 관계자를 넘어서 지

역사회에 개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주민 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은 48%로 나타났으며(박원형 2012), 대학도서관의 지역 사회 연대와 서비스 사례는 크게 자료 열람 및 관외대출 허용, 일반열람실 개방, 상호대차, 도서관 시설 및 문화공간 제공, 평생교육과정 개설,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우권 2009; 정희선 2015).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이 지역 정보서비스의 거점이자 지역정보서비스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며,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 사이에 동질감과 연대성을 형성하는 의식, 정서, 행동 방식 등에 있어서, 타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적 지표가 된다. 또한 지역문화의 특성과 개별성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 및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운영 및 홍보활동에 활용,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콘텐츠는 중앙집중 현상의 반작용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급증하면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시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지역간 교류와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지역간 편차와 이질성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도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역, 문화, 지역문화, 콘텐츠,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더불어 연구자에 따라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에 기반을 둔 콘텐츠' 또는 '지역의 전통문화유산,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콘텐츠'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류정아 2006; 장우권 2009).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를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있어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콘텐츠는 정체성, 특이성, 보편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김규원 2012), 지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 등 지역사회 통합적 기능,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적 기능,

〈표 1〉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용어정리

구분	내용
지역	• 시간의 힘에 의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특질을 누적적으로 소유하여,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굳어져 나타나는 곳
문화	• 일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집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생활양식 또는 사고방식 •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 문화를 규정하는 범주 •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며 역사적으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지만, 오늘날에는 산업과도 결합되면서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음
지역문화	•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의 작동을 의미하며, 지역 공간 속에서 문화의 창조와 향유,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콘텐츠	• ‘내용’, ‘의미 있는 내용물’이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미디어 기기 등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문화콘텐츠	• 미디어 혹은 플랫폼에 담기는 문화적·예술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

보존 및 지식과 정보의 전달 기능과 같은 사회 문화적 기능과 관련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 지역 브랜드의 홍보에도 도움 등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2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지역문화콘텐츠와 관련 사업으로 1)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과 2) 도서관계 지역문화콘텐츠 연계 사업으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지역 문화예술 기획자와 예술가, 지역민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유·무형적 콘텐츠를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본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드는 유·무형적 문화 플랫폼으로 지역민 누구나 쉽

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확산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각 지역의 유·무형적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며, 시·구·군 중심의 문화활동에서 읍·면·동 단위의 영역 세분화로 지역민들의 지리적 접근성 강화 및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가, 지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열린 참여로 창의적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성 확보 등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 내 발전 및 지속가능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2020년 기준으로 138팀이 766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741,736명이 참여하였다.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표 2〉와 같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지역문화콘텐츠의 활용 및 제공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직간

〈표 2〉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우수사례

구분	내용
서울 마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요) 지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역사적 사건, 인물, 장소에 대한 거점을 확보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연 / 전시 / 체험활동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 • (콘텐츠 주제 선정) 마포지역의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장소, 인물, 단체, 기관 등을 발굴 및 개발하여 평화와 통일의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선정 • (지자체 협력) 마포구청, 경의선 책거리, 김대중 도서관 등 • (주요 내용) 4차 산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역사적인 과제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지역의 대표콘텐츠로 발굴, 평화/통일의 거점들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행사로 기획, 전시, 공연, 체험, 영상상영 등 다채로운 콘텐츠 진행
경기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요) 지역 내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매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즐기는 세대공감 루프탑 문화제 실시 • (지자체 협력) 서울혁신파크, 50+서부캠퍼스, 은평공유센터 등의 지역 기관과 협력 • (주요 내용) 루프탑 문화제를 통한 지역 내 문화공유지 개발, 지역 내 다양한 기획자, 예술가와 협업 진행 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2020), 2019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성과 사례집 참조

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 캠퍼스는 고용창출의 효과, 구성원들에 의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인구유입의 효과,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주변지역과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 효과 등 다양한 형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은 지역사회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싱크탱크 혹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학은 자체적으로 문화적 요구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의 원천이자 문화서비스 제공자로서 문화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박물관, 도서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도시재생, 박람회 참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계 지역문화콘텐츠 연계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이 인문학을 향유함으로써 삶을 되돌아보고, 자생적 인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344개관이 선정되었다. 그 중 대학도서관에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에 선정되어 '삶과 역사가 공존하는 우리 마을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인문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동의과학대학교는 지역 주민 및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설 〈사하촌〉을 집필한 부산 출신 작가 '요산 김정환' 선생과 우리나라 최초 오페라 〈아리랑〉을 작곡한 부산 출신 음악가 '먼구름 한형석' 선생의 작품을 주제로 도서, 강연, 탐방, 토론 등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며, 학생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저명한 부산 출신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접하면서 당대 시대상과 지역성이 예술로 어떻게 승화되는지 배우고, 지역공간을 새롭게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정순형 2020).

3. 연구내용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조사·분석 및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진행된 사례 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 1단계,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자료관 및 자료실을 구성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사례는 지역문화콘텐츠 선정 이유, 자료관의 시설 및 장서 현황,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 제공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단계, 국내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도서관에 적용한 프로그램 제공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강의, 체험, 답사 등의

지역문화콘텐츠 프로그램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고, 그 외에도 정보서비스 등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 제공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러한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제공 사례의 특징 및 장점을 수렴할 시 대학이 대학도서관을 통한 지역 연계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자료실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아카이빙 등을 진행하는 사례는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사례 조사 시 대학도서관을 중점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지역문화콘텐츠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공공도서관 사례도 함께 조사·분석하였다. 사례는 크게 1) 별도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2) 지역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였다.

4.1 도서관 내 지역문화 관련 자료실 운영 사례

4.1.1 공주대학교 도서관 백제학자료실

공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15.7.4.)로 백제학 관련 지식 자원 요구가 증가하여 특화된 전문 컬렉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백제학 분야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백제학 자료”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해당 자료실은 지역 역사문화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공주대학교 도서관 고유의 특성화 분야 확보와 백제학 분야의 자료를 구입·기증 및 단행본·연속간행물 등 망라적으로 수집, 전용 열람 공간을 구축하여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장서는 단행본, 비도서, 정기간행물 등으로 구분되며, 단행본은 백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신간 자료 등을, 비도서는 교육 및 학술자료를 중심으로 시청각자료, 녹음자료, 지도자료, 컴퓨터 파일자료, 전자자료 등을, 정기간행물: 출판사·기관·학회·단체 등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학회지, 학술세미나 자료,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수집·제공하고 있다. 또한 백제학 자료 수집을 위해 한성백제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국립나주박물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 백제학 분야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와 답사 형식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백제 세계를 품다”란 주제로 백제를 통해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살펴보고,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통해 백제의 두 번 수도였던 공주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표 3> 참조).

4.1.2 제주대학교 도서관 제주자료실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제주지역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표 3> 공주도서관 백제자료실 현황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역사문화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공주대학교 도서관 고유의 특성화 분야 확보 백제학 분야의 자료를 구입·기증 및 단행본·연속간행물 등 망라적으로 수집 전용 열람 공간을 구축하여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 제고에 기여 			
장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행본: 백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신간 자료 등 비도서: 교육 및 학술자료를 중심으로 시청각자료, 녹음자료, 지도자료, 컴퓨터 파일자료, 전자자료 등 정기간행물: 출판사·기관·학회·단체 등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학회지, 학술세미나 자료, 보고서, 통계자료 등 			
	연도	구입	기증	계
	2017	358종 587책	152종 349책	510종 936책
	2018	155종 202책	32종 78책	187종 280책
	2019	80종 168책	53종 134책	133종 302책
합계	593종 957책	237종 561책	830종 1,518책	
인력	백제학 자료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자료운영팀 팀장 1명, 주무관 1명 배치			
공간	백제학 자료 비치서고를 설치·운영			
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학 분야 유관 기관과 협력 협약을 체결: 한성백제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국립나주박물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세계를 품다”란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와 답사 형식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지원 시스템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제주자료실을 구성하였다. 해당 자료실은 제주학 관련 기초자료 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제주 학술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이용자 접근의 편리성 향상과, 제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다양한 전시 운영 등을 제공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실 운영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대학으로서의 제주대학교 위상과 역할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에 중앙도서관 1층으로 제주자료실을 이전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주학 기초자료 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및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해 제주자료실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지역 신문 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의 편리성 추구 및 체계적인 제주자료 보존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학내 간행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통해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더불어 수집 및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도서관 소장 도서와 지역사회 작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제주자료를 활용한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4.1.3 청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

청주대학교 도서관은 청주지역의 대표적 지역 가치인 기록유산과 인쇄 문화를 통해 지역가치를 선도하고 세계문화예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충북 지역 가치』 향토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자료실은 충북 지역 가치와 관련한 특화된 주제 장서를 수집하여 교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과 널리 공유하고 청주권을 포함한 충북 전체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여 충북지역 중심 대학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고자 한다. 현재 『충북 지역가치』 향토자료로 1,756권을 보유하고 있

며, 지역가치 향토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신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충북 지역 가치에 관련된 세부 주제 분야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개발하고 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1.4 제주한라대학교 향토자료실

제주한라대학교 도서관은 주제정보서비스의 하나로, 웹을 활용한 시맨틱 향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이 제주도의 향토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보존을 넘어서 그 보존된 것을 새롭게 조직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아내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실은 관련된 향토자료명, 관련된 인물, 장소, 기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제주도 향토자료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한다. 현재 향토자료 2,351종, 관련장소 4곳, 관련인물 503명, 관련 주제 257개, 관련기관 577개관, 관련이벤트 4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

4.1.5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 중원 역사·문화 기록실

2015년에 개관한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 중원 역사·문화기록실은 충주문화 알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충주 및 중원지역 향토자료 소장 및 중원도서관의 특성화 주제로 진행하였다. 중원 역사·문화기록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성화 자료는 충주 및 중원지역 관련 고문헌과 향토지, 설화집, 영상미디어 자료 등이 있다. 소장 자료유형은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비디오 녹화자료 등이며, 2015년 개관 당시, 총 3,236건의 장서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보존을 위하여 관내에서만 열람 및 복사 가능하며, 대출은 허

용하지 않으며, 충주 및 중원지역 관련 자료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만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원 역사·문화기록실은 개소한 2015년부터 건국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중원 역사·문화기록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충주 및 중원지역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강연, 토론 등으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4.1.6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은 경남지역 민간에 흩어져 있는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에 개관하였다. 고문헌도서관은 고문헌 상설 전시실, 세미나실, 체험실습실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한문해독이 가능한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문해독이 불가능한 대학 구성원, 초·중·고생, 지역민 등도 고문헌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76,22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민 소장 고문헌의 궁급증 해결을 통한 문중 및 지역 애호심을 고취시키고 상담을 통해 민간소장 고문헌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전문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고문헌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지역민과 상생협력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증·수탁을 통해 민간소장 고문헌의 전문적인 보존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표 4〉 참조).

4.1.7 그 외 공공도서관 관련 사례

대학도서관 외 공공도서관에서도 지역문화콘

텐츠를 기반으로 별도의 자료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인천화도진도서관의 향토·개항문화자료관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은 개관 초부터 참고자료실에 향토자료코너를 마련하여 지역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였다. 2000년 7월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특화도서관사업에 선정되어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개설하고, 인천의 역사자료와 개항기 자료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관은 공공기관에 향토·개항자료 신문 대여 및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부사, 인천시사, 인천개항 100년사, 강도지 등 32권의 고서 원문 제공, 신착 향토개항자료의 목차 DB 구축 및 홈페이지 제공, 현재까지 수집한 소장자료 중 개항기의 원본자료(사진, 엽서, 실물자료, 지도 등) 만을 한 자리에 모아 인천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상설 전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서는 도서 10,556권, 비도서 1,702권으로 총 12,258권을 소장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1일 향토교실 및 순회전시 운영, 인천학 시민강좌, 향토역사 사진전 등이 있다. 1년 과정의 인천학 강의는 강의와 현장답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사시대부터 인천항 개항에 이르는 인천의 과거를 배우고, ‘경인철도’, ‘인천 전환국’ 등 지역의 역사유물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우리 고장 역사탐방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 문화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탐구함으로써 고장의 역사를 발견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운영한다. 향토교실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학교로 향토·개항 문화자료관 사서가 직접 방문하여 초등학교 3~4학

〈표 4〉 대학도서관 내 관련 자료실 운영 사례

구분	주제	내용
공주대학교 도서관 백제학자료실	백제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 위상 제고 및 공주대 도서관 고유의 특성화 분야 확보 백제학 분야 자료 구입·기증 및 단행본·연속간행물 등 망라적 수집 전용 열람 공간을 구축하여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성 제고 백제학 분야 유관 기관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자료 수집
제주대학교 도서관 제주자료실	제주지역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학 기초자료 활용시스템 구축 제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제주학 학술정보 확충 및 서비스 제주자료를 활용한 전시회 개최
청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	충북지역가치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가치 향토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신간 자료 수집 충북 지역 가치에 관련된 세부 주제 분야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개발하고 이를 집약적으로 제공
제주한라대학교 향토자료실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정보서비스의 하나로, 웹을 활용한 시맨틱 향토자료실 운영 자료별, 관련주제, 관련장소, 관련기관, 관련이벤트, 타임라인 등으로 지역문화콘텐츠 제공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 중원역사문화기록실	중원 역사·문화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 및 중원지역 관련 고문헌과 향토집, 설화집, 영상미디어 자료 등 충주 및 중원지역 관련 자료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만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상호대차서비스 지원 연 1회 '중원 역사·문화기록 심포지엄' 개최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으로부터 기증·기탁 받은 고문헌 및 문화재급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연구에 활용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고문헌 상담 서비스 제공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문화콘텐츠 또는 지역 출신 인물과 관련한 콘텐츠 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 지역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 문화교육 기능을 수행

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천 관련 사회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의 모습, 자랑, 생활과 변화, 인천의 생활 등 인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향토사진전은 화도진공원 내 마당에서 인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자리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전을 개최하며, 그 외에도 인천 근대 개항장 거리문화제를 기념하여 인천의 근대 모습을 볼 수 있는 개항 파노라마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표 5〉 참조).

둘째, 속초시립도서관 향토자료관이다. 속초

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 정보향유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이 지역 향토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작가들의 작품과 지역의 문화·예술·역사와 관련된 자료 600여 권의 책을 한 곳에 모은 향토자료관 운영하고 있다. 자료는 연중 지역 출신 및 연고 작가가 집필한 도서와 속초를 주제로 한 도서 등을 자체구입하거나 기증을 통해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지역작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의 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연중 전시하고 있다.

〈표 5〉 인천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 장서현황

도서(권)				비도서(점)						총계
일반도서	논문	고서	소계	엽서, 사진 지도 등	마이크로 필름	비디오	CD-ROM	DVD	소계	
9,793	523	240	10,556	1,542	62	5	62	31	1,702	12,258

셋째, 선경도서관 수원학자료실은 기존 향토 자료실을 2017년 '수원학자료실'로 이름을 변경하여 재개관하였다. 수원 관련 고문헌이나 고문서, 수원을 빛낸 인물자료, 수원시 및 인근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의 족보, 수원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지역 연구자와 향토문인 4인의 개인문고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아 현재 1만 5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수원학자료실은 수원에서 발간한 자료 및 수원에 관련된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가 좀 더 수원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코너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넷째,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향토문화관은 대구문인협회 1,077명, 경북문인협회 592명, 총 1,669명의 창작자료(도서, 육필원고, 동인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향토문화관은 대구, 경북 문인들의 창작자료를 다양하게 집중 수집하여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역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자료실은 향토문인들의 창작의욕 증대와 지역주민

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향토문학인들의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저서와 육필원고, 사진자료, 애장품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관련 전공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지식 창고 구실을 하고자 한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향토문학기행(우리 고장이 배출해낸 향토문인 및 문인들의 생가와 시비 등 문학의 산실이 되었던 문인들의 발자취 찾아보기), 향토문인 작품 독후감상문 공모전(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향토문인의 작품을 읽고 독후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토문학에 대한 관심 유도), 향토문인 육필원고 전시회(향토문인들로부터 기증 받은 육필원고를 전시하여 지역민들에게 향토문학을 알리고 향유하는 기회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표 6〉 참조).

다섯째,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이다. 1991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근대 공공도서관의 효시로서, 한·일 외교관련 자료원본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본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고서와 다수의 해방전일서를 소장하고 있다. 특성화자료인 고문헌과 해방전일서는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당시의 향토사와 분야별 근대사를 연구하

〈표 6〉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향토문화관 장서현황

구분	도서	육필원고	동인지	시대사 판넬 및 사진	인문사진	이미지판넬	계
권(점)	16,631	461	1,922	13	15	10	19,052

는 많은 학자 및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일 외교자료, 일제시기 외교자료, 근현대 신문자료 등을 DB화하여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는 『포은시고』, 한·일 외교관련 비소장귀중본, 소장귀중본, 주요 한국 고서, 주요 일본 고서, 주요 중국 고서, 조선 관련 고서 목록, 해방전 일서 목록, 관련 사이트 등의 소개와 안내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고문헌실 소장자료인 광복 전 일본서적 18,400여 책 중 한국관련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일본 서적 및 순일본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여섯째, 서울도서관은 서울자료실, 서울기록문화관, 구시장실 복원공간을 활용한 독립적인 향토문화콘텐츠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자료실은 서울시 및 정부기관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료 및 각종 학회지를 소장하고 있으며, 개가제 방식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실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기록문화관은 서울특별시의 기록과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지식공간이자, 서울시민과 서울특별시의 소통공간으로 주요 시정기록물 원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주제별 시정 주요 기록물 전시 및 원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토문화콘텐츠실은 서울기록문화관 옆 구청사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시민 체험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옛 청사 시장실, 접견실, 기획상황실을 복원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의 주요 시정 및 각 공간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도록, 옛 집기, 가구 등을 그대로 설치함으로써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고, 주요 결재서류 등 상징성 있는 주요 시정자료

를 전시하고 있다(〈표 7〉 참조).

4.2 지역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사례

4.2.1 군산대학교 도서관의 군산문화 기반 프로그램

군산대학교 도서관은 군산시에 대한 지역학·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강연 및 탐방을 통한 지역문화의 다각적인 이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 강화 및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제 선정 및 강연자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선정/검토,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수립 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선발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4.2.2 호원대학교 도서관의 지역문인 연계 행사

호원대학교 도서관은 〈제2차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2019~2023〉에 따라 군산지역과 함께하는 도서관 지역문인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군산지역 내 대학으로 지역출신 문인과 함께하는 독서골든벨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문화소양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학생의 독서능력 향상 및 교양지식, 지역 문화지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행사는 KBS 1 TV의 “도전 골든벨” 포맷 방식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에게 문제 출제, 서바이벌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 선정, 초반 탈락자의 구제를 위한 패자부활전 시행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문제는 지역을 위한 문제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7〉 공공도서관 내 관련 자료실 운영 사례

구분	주제	내용
인천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	향토자료, 개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향토·개항자료 실문 대여 및 이미지 자료 제공 • 원문·목차 DB 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 • 인천개항 자료전시관 운영 • 인천학 강의, 우리 고장 역사탐방, 향토교실, 향토사진전 개최
속초시립도서관 향토자료관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작가 작품과 지역의 문화·예술·역사와 관련된 자료 600여 권의 책을 한 곳에 모은 향토자료관 운영 • 연중 지역 출신 및 연고 작가가 집필한 도서와 속초를 주제로 한 도서 등을 자체구입 하거나 기증 • 지역작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의 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연중 전시
선경도서관 수원학자료실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관련 고문헌이나 고문서, 수원을 빛낸 인물자료, 수원시 및 인근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의 족보, 수원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지역 연구자와 향토문인 4인의 개인문고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아 확충함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향토문화관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인들의 창작의욕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전시: 저서와 육필원고, 사진자료, 애장품 등 전시(이상화 탄생 100주년 기념특별전, 향토문학 자료 전시회 등) • 향토문학 프로그램: 향토 문인작가 초청강연회, 향토문학기행 진행: 두류공원·고령·지산동 등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	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은시고』, 한·일 외교관련 비소장귀중본, 소장귀중본, 주요 한국 고서, 주요 일본 고서, 주요 중국 고서, 조선 관련 고서 목록, 해방 전 일서 목록, 관련 사이트 등의 소개와 안내서비스 제공 • 광복 전 일본서적 중 한국관련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일본 서적 및 순일본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발간
서울도서관	향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자료실, 서울기록문화관, 구시장실 복원공간을 활용한 독립적인 향토문화 콘텐츠실 운영 • 서울시 및 정부기관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료 및 각종 학회지 소장 • 서울시 제조업 특화지역 현장스케치 사진전 등 전시회 개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광범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자원 저장소와 문화자원의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이용자가 지역문화 자원의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교육, 창작 활동의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

4.2.3 초당대학교 도서관의 지역문화 기반 문화행사

초당대학교 도서관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 도서관 간 가을문학기행 공동 운영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서관

업무 및 기관 협력 강화, 한국 유명 문학에 잠재된 시대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체험 독서 활동을 통해 학의 심도 높은 감상 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유명 문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학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진 내용으로는 군산 근

대역사박물관 답사,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문화 거리 투어, 채만식 문학관 답사,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답사 등 이다.

4.2.4 나주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은 동신대학교를 출발하여 국립나주박물관, 반남고분군, 북암리고분군을 순서대로 탐방하여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고대문화를 배우고 옥 목걸이 만들기 체험, 달빛고분 산책 등을 통하여 즐거운 역사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관련 주제 도서로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성립과 발전'을 추천하였다. 제2차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은 지역민 20가족과 목사마을로 힐링 인문학 여행을 진행하였다. 영산포구의 발효음식을 알아보고 발효음식 중 하나인 영산포 홍어 숙성 체험, 전라도 김치 버무리기 등을 체험하고, 관련 주제 도서로 '시가 있는 밥상'을 추천하여 제공하였다. 제3차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은 나해철 작과와 함께 떠나는 영산강 가람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나주공공도서관에서 출발해 영산포 포구와 등대, 선창거리, 황포돛배체험, 백호문학관, 양암바위,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등을 둘러 보았으며, 관련 주제 도서로 '무등에 올라(영산포)'를 추천하였다.

4.2.5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근대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전차와 기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를 달리는 철도'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는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이 향토자료 특성화도

서관으로 부산의 역사 및 문화에 관련된 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근대의 대표적 운송수단이 전차와 기차를 통해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우리의 근대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토자료 특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근대사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사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부산의 민속놀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서관 2층 로비에서 관람할 수 있었으며, 부산의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동래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등 민속놀이를 그림 함께 전시하였다.

4.2.6 부천시립심곡도서관

부천시립심곡도서관은 지역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향토사 교실, 역사논술교실, 향토역사 퀴즈왕 선발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향토사교실은 초, 중, 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천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 알아보기 등의 주제로 향토사 교실을 운영하였다. 역사논술교실은 초등학교와 어른을 대상으로 지역의 향토유적지를 견학하면서 흥미 갖기, 표현력 향상, 올바른 글쓰기, 일고느낀 점 표현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향토역사 퀴즈왕 선발대회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시정에 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애郷심을 고취시켰다(〈표 8〉 참조).

4.3 시사점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자료실 운영, 서

〈표 8〉 지역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사례

구분	유형	내용
군산대학교	강연, 탐방	• 도서관 책과 함께 군산문화 알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호원대학교	체험, 대담	• 군산지역 내 대학으로 지역출신 문인과 함께하는 독서골든벨 개최(지역작가와의 대담)
초당대학교	체험	• 한국 유명 문학에 잠재된 시대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체험 독서 활동을 통해 채만식 문학의 심도 높은 감상의 기회 제공
나주공공도서관	탐방	• 동신대학교를 출발하여 국립나주박물관, 반남고분군, 복암리고분군을 순서대로 탐방 • 지역민 20가족과 목사마을로 힐링 인문학 여행 • 나해철 작가와 함께 떠나는 영산강 가람길 걷기 행사 진행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전시	• '근대를 달리는 철도' 사진전 • 부산의 민속놀이 전시회
부천시립심곡 도서관	강의, 체험	• 부천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 알아보기 등의 주제로 향토사 교실 운영 • 어른 대상 역사논술 강좌 진행: 향토유적지를 견학하면서 느낀 점 표현하기 등의 논술 프로그램 진행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 탐방과 학습, 독서,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 • 지역 내 일부 지역을 탐방한 후,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참여, 도서 읽기,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 • 사진전, 전시회 등 개최하여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진행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지역문화 또는 향토문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에 등재된 콘텐츠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이거나, 지역가치를 선도하는 콘텐츠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지역작가 및 지역 연구자, 향토문인 등 지역 출신 인물의 연구 또는 작품 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관련 지역문화콘텐츠를 선정할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나 지역 출신 인물의 연구

와 작품 등 해당 지역에서만 특성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 내 지역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관련 분야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과 심포지엄이나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사진작가, 제주대 학생, 제주작가회 소속 작가, 4.3평화재단 등 제주4.3사건에 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제주 4.3추념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도서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맨틱 향토자료관을 운영하며, 일반 시

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료 수집, 학술정보 확충 및 서비스 또는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 문화계와 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문화계의 인큐베이팅 기능과 지역 문화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때 지역 문화계에는 지역교육기관, 미술관(전시장), 박물관(문화원), 공연장,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기타 단체 등이 포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샌디에이고 공공도서관은 로컬 작가 프로그램, 오페라 인사이드 시리즈 등 시각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해당 작가들에게 공연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 문화계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의 문화계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작가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지역 작대와 지자체, 지역문화계 등을 상호 연결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에서는 지역문화콘텐츠를 융복합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과 학습, 독서,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나주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일부 지역을 탐방한 후,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참여, 도서 읽기,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였으며, 군산대학교 도서관은 지역문화의 다각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국영화 속 군산'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군산시에 대한 지역학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강연 및 탐방 결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에서는 학습, 강의, 독서, 체험 등이 융복합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개발하여 대학도서관 고유의 특성화 분야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교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과의 지역문화콘텐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친화적인 이미지 확보 및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실 운영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대학으로서의 대학교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향토문인들의 창작의욕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대학은 지역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연구자, 향토문인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사진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근대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전차와 기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를 달리는 철도' 사진전을 개최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형태의 지역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활성화 방안

우리 사회의 중앙집중 현상의 반작용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학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입학자원의 감소, 기초학습능력의 저하,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 간 경쟁체제로 인해 그 위기를 맞고 있으며(정명화, 김정란 2013),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도 대학의 지역연계 및 지역사회공헌도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공헌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은 대학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생태를 활용한 테마 콘텐츠를 발굴하고, 발굴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이 지역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 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지역단체네트워크 구축

대학도서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 또는 지역 출신 인물과 관련한 콘텐츠 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거나,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 문화교육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주대학교는 1985년에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흥덕사지를 발굴하여 시작된 청주지역 기록유산과 인쇄 문화의 지역가치는 2001년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됨

으로써 결실을 맺게 됨에 따라, 청주지역의 대표적 지역가치인 기록유산과 인쇄 문화를 통해 지역가치를 선도하여 세계문화예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충북 지역 가치』 향토자료를 구축하였다. 지역가치 향토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신간 자료를 수집하고, 충북 지역 가치에 관련된 세부 주제 분야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개발하고 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콘텐츠 생산 및 제공 측면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문화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콘텐츠를 지역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도서관에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콘텐츠를 시민, 연구자, 교내 관계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육 기자재, 재정, 강사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대학도서관이 지역문화콘텐츠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지역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예술 및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박물관, 미술관, 향토자료관, 지방문화원, 예술진흥원 등의 지역 유관기관 및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5.2 융복합 형태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 탐방과 학습, 독서,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나주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일부 지역을 탐방한 후,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참여, 도서 읽기,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사진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근대를 달리는 철도’ 사진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이 향토자료 특성화도서관으로 부산의 역사 및 문화에 관련된 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근대의 대표적 운송수단이 전차와 기차를 통해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우리의 근대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토자료 특성화의 일환으로 근대사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사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다양한 삶의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3 대학도서관 기능 확대 인식 향상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광범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자원 저장소와 문화자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지역문화 자원의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교육, 창작 활동의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서관 인프라의 지역사회 공유·개방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이미지를 통해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이 지역 정보서비스의 거점이자 지역정보서비스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자료실 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진행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지역문화 또는 향토문화 콘텐츠는 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에 등재된 콘텐츠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이거나, 지역가치를 선도하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지역작가 및 지역연구자, 향토문인 등 지역 출신 인물의 연구 또는 작품 등을 지역 문화콘텐츠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도서관 내 지역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관련 분야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과 심포지엄이나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더불어 지역 문화계와 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문화계의 인큐베이팅 기능과 지역 문화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대학도서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 또는 지역 출신 인물과 관련한 콘텐츠 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거나,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회, 문화교육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 탐방과 학습, 독서,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은 지역 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광범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자원 저장소와 문화자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자료실 운영 또는 지역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사례가 공공도서관 수에 비해 많지 않아, 대학도서관의 활발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학도서관 지역문화콘텐츠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9.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 8월 14일. [online]. [cited 2020.8.4].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2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김원진. 2019. 세계대학랭킹 주요 지표는 지역사회 공헌도. 인천일보 7월 5일. [online].
 [cited 2020.8.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430>>.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2020. 『2019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성과 사례집』. 서울: 지역문화진흥원.
- 박원형. 2012. 『대학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송소연. 2020. 대학도 사회적 기관,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책임'은 필수. 사회적경제미디어. 5월 15일.
 [online]. [cited 2020.8.3].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15>>.
- 이중호. 2019.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살기'. 프레시안. 5월 17일. [online]. [cited 2020.8.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1250#0DKU>>.
- 장우권. 2009.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연대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3-45.

- 정명화, 김경란. 2013.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전문대학 적용을 위한 이론적 기초. 『통합교육연구』, 8(2): 99-119.
- 정순형. 2020. 동의과학대학교,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부산일보, 6월 9일. [online]. [cited 2020.8.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0911222287505>〉.
- 정희선. 2015.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진창남. 2002.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홈페이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online]. [cited 2020.8.3]. 〈<http://www.rcda.or.kr/20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Woo-Kwon.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Solidarity and Service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3-45.
- Cheong, Myung Hwa and Kyung Ran Kim. 2013. "A Theoretical Bases for the Applying Method of Community Based Learning to Community College."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8(2): 99-119.
- Jeong, Hee-Sun. 2015. *A Study on the Extension of Local Community of University Libraries*.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Jeong, Soon-hyung. 2020. Dongeui Science University, Selected as a Humanities Project on the Library Road in 2020. The Busan Ilbo, June 9. [online]. [cited 2020.8.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0911222287505>〉.
- Jin, Chang-Nam. 2002. *How to Link University Libraries to their Communities*. M.A. thesis,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Kim, Wonjin. 2019. The Major Index of the World University Ranking is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Incheon Ilbo, July 5. [online]. [cited 2020.8.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430>〉.
- Lee, Jong-ho. 2019. 'Living Together' with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Pressian, May 17.

- [online]. [cited 2020.8.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1250#0DKU>>.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gional Culture Promotion Agency. 2020. *2019 Culture Day <Regional Culture Contents> Project Performance Case Book*. Seoul: Regional Culture Promo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2019. Announced the Draft of the Basic Plan for the Diagnosis of Basic University Competency in 2021. August 14. [online]. [cited 2020.8.4].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2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Park, Won-Hyoung. 2012.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of Academic Libraries and Local Communities*.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 Song, So-yeon. 2020. University is also a Social Institu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is Essential to Survive. *Social Economy Media*, May 15. [online]. [cited 2020.8.3].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415>>.

